

DS

Device Solution

DS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 개발 역량, 탁월한 양산 능력과 원가경쟁력 그리고 고객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반도체, LCD 등의 핵심 부품을 생산, 세계 전자와 IT 산업의 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실현하는 반도체와 세상을 밝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LCD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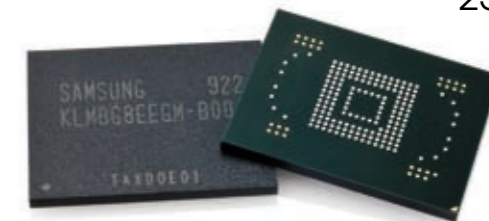
MEMORY
SYSTEM LSI
STORAGE
LCD



24

35

25



SEMICONDUCTOR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 개발 역량과 탁월한 양산 능력, 고객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System LSI, 스토리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공정기술 선행 개발과 차별화된 제품군 확대, 원가 절감의 성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메모리 사업에서는 저전력 제품 특성을 강화한 차세대 DRAM 제품으로 하이엔드 시장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서버와 고성능 PC에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SSD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원드램(OneDRAM™), 대용량 모비낸드(moviNAND™) 등 차별화 제품 시장을 확대하여 제품의 경쟁 우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System LSI 사업 역시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업체와의 기술경쟁력 격차 확대와 원가경쟁력 확보, 차별화 제품 판매 강화로 수익성을 높여 반도체 산업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MEMORY 삼성전자는 1993년 이래 메모리 세계 1위를 지속해온 선도 기업으로서 DRAM, SRAM, 플래시 메모리 제품군에서 신기술과 최첨단 공정을 선행 개발하고 SSD, 퓨전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 PRAM 등 고성능 신제품을 출시하여 새로운 메모리 시장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DRAM은 세계 최초로 40나노급 DRAM, 4Gb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시장 주력 제품인 60나노급 제품에 비해 소비 전력이 1/4 수준인 40나노 2Gb DDR3 DRAM을 양산함으로써 친환경 솔루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낸드는 업계 최초로 30나노급 낸드를 탑재한 32GB 모비낸드를 양산하여 휴대폰의 대용량 솔루션을 확보하였으며, 고성능·대용량 SSD 양산으로 차세대 저장장치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Gb 원드램, 40나노급 8Gb 플렉스 원낸드(Flex-OneNAND™) 등 기존 대비 2배 용량의 제품을 출시하여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메모리 응용처를 꾸준히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4. 휴대용 외장형 HDD (S Series)

독자 개발한 'USB 일체형 기술'로 초소형화, 경량화, 저소비 전력을 실현한 휴대용 외장형 HDD는 자동백업, 암호화된 보안 영역(시크릿존), 잠금 패스워드(세이프티키) 등 차별화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지원합니다.

25. 32GB moviNAND™

차세대 설계 기술을 채택해 제품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킨 30나노급 32Gb 낸드를 8개 적층한 제품으로 업계 최초로 양산을 개시, 고성능·대용량 모바일 기기 응용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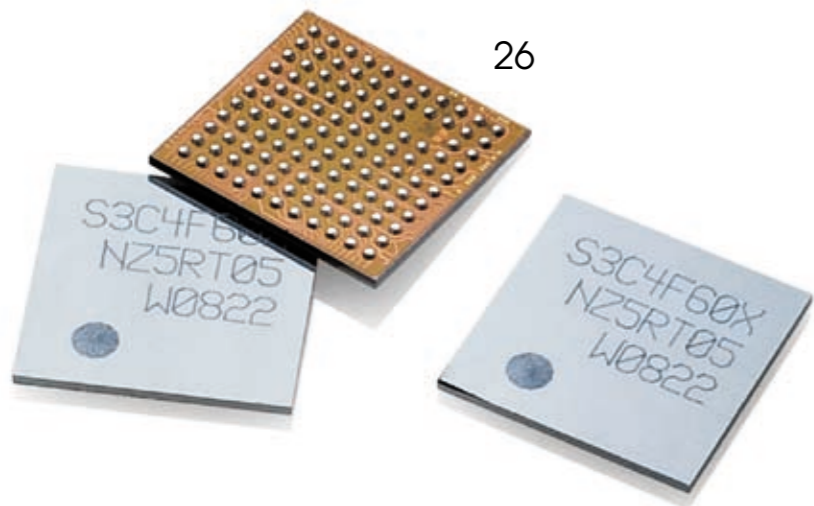
30.1%

2008년 DRAM 세계 시장점유율

“ 한 발 앞선 기술 개발과 뛰어난 양산 능력, 공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

SYSTEM LSI System LSI 사업에서는 세계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MP3 플레이어 SoC(System on Chip)와 함께 스마트카드 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CMOS 이미지센서, 디지털 TV용 SoC, 플래시 컨트롤러, 차세대 옵티컬 스토리지용 SoC 등을 8대 일류화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90나노 EEPROM 탑재 스마트카드 칩, 모바일 기기용 고성능·저전력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 TV SoC를 개발한 데 이어 플래시 컨트롤러와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등을 한 칩에 구현한 업계 최고 속도 무선 USB 칩을 개발하는 등 System LSI 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STORAGE 모바일과 디지털 가전제품의 고용량 데이터 저장장치인 HDD를 생산하는 스토리지 사업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인치, 1.8인치, 2.5인치, 3.5인치 등 다양한 크기와 40GB에서 1.5TB까지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외장하드 사업에도 본격 진출하였습니다. 1.8인치 'S1 미니', 2.5인치 'S2 포터블' 등 독자적인 USB 일체형 기술을 적용하여 소형화, 경량화, 저전력을 실현한 휴대형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데스크탑용 제품인 3.5인치 'STORY Station'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에코트라이앵글(EcoTriangle™) 기술을 적용, 저전력, 저소음, 친환경을 실현한 HDD와 외장하드 겸용 '에코그린' 시리즈를 선보이는 등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6

26. 모바일 TV 멀티모드 수신용 RF 원칩
세계 최초로 신호를 수신하는 RF 칩과 신호를 변환하는 디지털 채널 칩 2개를 원칩화한 모바일 TV용 SoC 제품으로 고속 이동 중에도 세계 각국의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LCD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 양산 능력, 원가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LCD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8세대 라인에 집중 투자하고 대형 TV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패널 시장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25.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2002년 이후 7년 연속 LCD 업계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2조 원 대의 이익을 달성, 업계 최대의 이익률을 실현하며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고의 화질을 보여 주는 s-PVA, 240Hz 기술을 기반으로 26인치부터 70인치까지 풀 HD급의 TV용 LCD 패널을 생산,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해상도와 240Hz의 고화질, 무수은·저전력의 친환경성을 구현한 대형 LED TV용 초슬림 패널을 업계 최초로 양산, 본격적인 LED TV 시대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풀 HD급의 화질보다 무려 4배 가까이 해상도를 높인 82인치 UD급 120Hz TV용 LCD 패널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UD급 제품에서도 시장을 주도해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7



27. 46인치 Super Narrow Bezel DID
패널과 패널 사이의 테두리 두께가 기존 제품의 1/4에 불과한 7.3mm로 멀티 스크린으로 구성해도 자연스럽게 선명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초슬림 DID 패널입니다.

25.7%

2008년 TFT-LCD 세계 시장점유율

“
 화질, 크기, 두께,
 친환경성 등
 고객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LCD로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 세상을
 열어갑니다.”

모니터, 노트북 PC 등 IT용 패널에서는 최고의 색재현성을 갖춘 다양한 사이즈의 고해상도 제품과 함께 16:9 와이드 화면과 초슬림 디자인을 적용, 휴대가 용이하고 멀티미디어 구현에 적합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인치 이상 대형 패널과 16:9 와이드 패널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니 노트북 수요 증가에도 대비, 최적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테두리(베젤) 두께가 7.3mm에 불과한 46인치 DID 패널을 양산하고, 야외 설치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개발한 46인치(1500cd/m²), 70인치(2000cd/m²) 고휘도 DID 패널을 선보이는 등 DID 시장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서도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터치스크린 내장형 LCD와 240Hz 초고속 영상 구현에 적합한 블루 페이즈 방식의 LCD를 개발한 데 이어 52인치 풀 HD 3D 디스플레이, 4.3인치 플라스틱 LCD, 14.3인치 컬러 e-paper 등 미래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디스플레이 산업의 진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LCD 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고자 양산 능력을 비롯한 핵심 경쟁력 강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 최대 크기인 8세대(8-1) 라인과 중국 LCD 모듈공장, 2008년 슬로바키아 LCD 모듈공장 가동에 이어 2009년부터 추가 8세대(8-2) 라인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양산 능력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세대와 8세대 생산 능력의 확충을 통해 대형 패널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 확대와 고객 기반 강화,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미래 신사업 발굴에도 주력하여 세계 1위 업체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28

28. 70인치 2000니트 DID

LCD TV의 4배에 이르는 초고휘도를 구현하여
 야외에서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화면을
 표시할 수 있는 옥외용 DID 패널로
 소비 전력을 크게 감소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